오늘의 날씨와 생활

11월 3일 화요일 음 9월 24일 (1물)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10%	제 주	20%
10%	성 산	20%
10%	고 산	20%
10%	서귀포	2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	14/21℃
모레	흐리고 비	17/22℃

구름많음

제주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4℃, 낮 최고기온은 18~20℃로 예상된다. 대체로 맑다 오후부처 차차 구름이 많아질 예정이니 유의해야겠다.

	해뜸 06:54 해짐 17:41		달뜸 00:37 달짐 14:17
물때	만조 05:59 18:57		간조 00:19 11:55

자외선지수 보통 / 산불위험지수 보통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미, 러시아산 가스 유럽 수출 재개 추진

우크라 경유 가스관 재가동 제안



쿠슈너, 윗코프 특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부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지나는 가스관을 재가동해 러시아산 가스의 유럽 판매 재개를 추진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재러드 쿠슈너는 지난 9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에너지 휴전' 협상에서 이를 제안했다. 그러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춰온 유럽은 반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관은 2022년 러시아 침공 후에도 제한적으로 가동됐으나 계약 만료로 2025년 1월 중단됐다. 우크라이나는 연간 8억달러의 운송 수수료를 잃고 있다.

미국은 11월 중순 UAE에서 열릴 3자 평화 협상을 앞두고 에너지 휴전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유럽 가스 시장 복귀를 푸틴 대통령의 평화 합의 유인으로 보고 있다. 판매 수익은 제3국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해 전쟁 자금으로 쓰지 못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유럽연합은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구매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유럽은 전쟁 이후에도 수입을 재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유럽 천연가스 중 러시아산 비중은 11%로 전쟁 전 45%에서 줄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 한 욱 편집국장 고 대 로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 1988. 12. 5 등록번호 :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한라칼럼



고 용 현
도시설계학회 정책협력위원장(도시공학박사)

세계가 찾는 제주, 랜드마크는 제주다움에서 시작한다

제주는 이미 세계적인 자연유산을 품은 섬이다. 한라산과 오름, 바다와 현무암, 돌담과 초가마을은 다른 도시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제주의 자산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자연경관만으로는 부족하다. 제주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도시건축을 통해 세계인이 제주를 기억할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은 건축이 도시의 쇠퇴를 극복하고 문화관광의 가능성을 열 수 있음을 보여줬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는 건축물과 수변공간, 문화·상업시설을 연결해 도시의 상징을 만들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도 항구 풍경과 어우러진 형태로 도시의 정체성을 세계에 각인시켰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화려한 건축물을 세운 데 있지 않다. 건축을 도시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 공공공간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랜드마크는 건축물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 주변 도시와 조화를 이루고 시민의 일상에 스며들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때 비로소 도시의 자산이 된다. 그렇다면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제주의 최고층 건물 드림타워가 제주의 상징적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까?

제주에는 어떤 랜드마크가 필요할까. 답은 제주가 보유한 역사문화공간과 자연경관에 있다. 성읍민속마을이 대표적이다. 현무암 돌담과 초가, 좁은 골목, 전통적인 마을의 공간구조에는 제주의 기후와 바람에 적응한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경관을 형성한다. 섭지코지는 자연공간과 건축의 조화를 보여준다. 자연을 압도하는 건축보다 자연을 경험하도록 돕는 건축이 더 큰 매력을 만들 수 있다. 서귀포의 본태박물관도 주목할 만하다.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이 건축물은 노출콘크리트와 물, 빛, 중정 등을 활용해 주변 환경과 건축의 관계를 탐구한다. 제주다운 건축은 외관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 속에서 새로운 공간 경험을 만들어내는 데서 시작한다. 제주시 원도심의 제주목관아 역시 중요한 자산이다. 역사문화유산을 골목과 상업공간, 시장 등 일상과 연결한다면 원도심은 살아있는 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

랜드마크를 만든다는 이유로 초고층 건축물이나 대규모 개발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제주의 경쟁력은 자연과 문화의 고유성에 있다. 건축의 규모와 높이, 재료와 배치를 환경과 조화시키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포함한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개별 건축사업의 인허가를 넘어 도시 전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도시는 건축으로 기억되지만 그 건축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은 도시가 지켜온 고유한 가치에 있다. 제주의 랜드마크는 유명 건축물을 닮는 데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 제주만의 자연과 문화, 삶의 방식을 현대적 건축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이것이 제주다움을 지키면서 미래의 도시와 건축을 설계하는 길이다.

열린마당

에너지 진단으로 절감 가능성을 확인하다



이 동 민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에너지정책과

제주도는 올해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역본부, 제주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16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했다. 전기·연료 사용량과 냉난방·급탕설비, 창호, 단열 상태를 점검하고 태양광과 히트펌프 설치 가능성을 조사했다.

진단 결과 태양광 설치, 히트펌프 전환, 냉난방기 청소·교체 등 51개 개선 방안을 발굴했다.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생활시설은 이용자가 상시 거주해 냉난방과 급탕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방안을 모두 실행하면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20.8% 줄이고 에너지비용 약 1억5000만원, 온실가스 약 457t을 절감할 수 있다. 예상 시설개선비는 약 8억2000만원이며 투자비 회수기간은 약 5년 6개월이다.

지난해 12개소의 진단 결과도 시설개선으로 이어졌다. 희망원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희망원은 태양광 설비를 50kW에서 74kW로 확대하고 전기온수기 11대를 히트펌프로 교체했다. 연간 에너지 약 15만kWh와 온실가스 약 63t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도 수중재활운동센터의 등유보일러 3대를 중온수 히트펌프 4대와 고온수 히트펌프 6대로 교체하고 있다. 총용량은 220RT(냉동톤)로 가정용 18평형 거실 에어컨 약 110대 규모다.

제주도는 개선방안의 이행 여부와 실제 절감 효과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효율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매일 아침 1시간 걷기와 근력 운동



변 종 운
제주시 도련2동 경로당 회원

노년기에 접어든 이들이 요즘 꼽는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젊은 날부터 규칙적인 운동을 습관화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노년에는 근감소와 골밀도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꾸준한 운동은 노년기 삶의 자립성을 지키는 핵심이다.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이들이 만성질환을 멀리하고 높은 일상 수행 능력을 유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노년의 건강 관리가 거창할 필요는 없다. 걷기와 스트레칭처럼 기본에 충실한 활동을 매일 묵묵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꼭 땀 흘리는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다.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 안에서 차오르는 에너지가 하루를 생기 있게 지탱해 준다.

노년기 신체 관리의 철칙은 무리함이 아닌 지속성이다. 매일 아침 이어가는 1시간의 걷기와 공원에서의 스쿼트 100회는 내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하체 근력과 심폐 지구력을 지켜주는 비결이다.

아침에 몸을 움직여 굳은 근육과 혈관에 활력을 불어넣으면, 그 긍정적인 변화는 마음까지 밝고 능동적으로 하루를 이끌어 준다. 나이를 먹을수록 내 몸을 아끼고 돌보는 시간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오늘 아침도 내 몸에 맑은 에너지를 선물한다는 기분으로, 연삼로를 걷고 공원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국립종자원 인증'무병묘'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귤
유라조생 / 하귤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2026년 예약 중 보조사업 가능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010-4450-4316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 장원농장

감귤 신품종 분양
2027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 주
궁천, 유라조생, 하례조생, 흥진조생, 고림, 오하라베니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 표 : 010-2691-1883

각종감귤묘목 판매
감귤 포트묘 전문·무병묘 생산 지정업체
2027년 봄 묘목 분양 예약 접수
민성종묘
제주 서귀포에서 감귤 묘목을 직접 생산·관리합니다.
분양 품종
조생감귤 · 궁천조생 · 하례조생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
만감류 ·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카라향 · 미래향 · 사라향
제주도내 품종 · 우리향 · 달코미 · 맛나봉 · 레드스타
그 외 품종 · 레몬 · 제라몬 · 미니몬 · 하귤 · 당유자 · 금귤 · 문단 · 레드허니포멜로 · 감귤 결실화분묘
검사로 확인한 감귤무병묘
검사기관의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사를 통과한 묘목
무병묘 구입비 지원 안내 (신청서류 작성 지원)
1주당 1,500원
감귤무병묘 품종
하례조생 · 천혜향 · 사라향 · 레드향 · 제라몬
포트묘의 장점
높은 활착률로 초기 생육에 유리
뿌리 손상이 적어 식재 스트레스 감소
심는 시기 조절이 비교적 편리
운반과 관리가 편리
품종 갱신 · 신규 과원 조성 · 품종별 구입 · 재배·묘목 선택
예약·상담 문의 민성종묘
010-3694-5423
전국 배송 가능 · 상담 문의 환영
품종 · 수량에 따라 출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입 전 상담해 주세요.